J. fash. bus. Vol. 18, No. 5:1-14, Dec. 2014 ISSN 1229-3350(Print)
http://dx.doi.org/10.12940/jfb.2014.18.5.1 ISSN 2288-1867(Online)

20대 여성의 비만도, 신체태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이 주 영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Body Mass Index, Body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of Women in Their Twenties

Lee Juyoung
Dept. of Fashion Design Soongeui Women's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body mass index of women in their twentie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body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398 people from May 2 to May 30, 2013. The final data was analyzed with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 found that body attitude had this order: Feeling fat, Lower body fatness,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Attractiveness, Strength and fitness, and Body disparagement Second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body attitude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body mass index. Thirdly, I found that clothing attitude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of Personality pursuit, Body complement, Appearance ostentation, and Social approval. Fourth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lothing attitude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body mass index. Fifthly,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 of body mass index, body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of women in their twenties. Thus, I found that body mass index and body attitude were related to clothing attitude.

Key words : body attitude(신체태도), body mass index(비만도), clothing attitude(의복태도)

Ⅰ. 서론

비만은 여러 가지 성인병의 인자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만한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신체

Corresponding author: Lee Juyoung, Tel. +82-2-3708-9256, Fax. +82-2-3708-9124
E-mail: lycra2@hanmail.net

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hoi, Kim, Moon, & Kim, 2006).

또한 현대의 다양한 대중 매체와 사회적 유행이 마른 체형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은 지나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와 체형을 중시하고 있으며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여성들도 자신이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생각(W. Lee, 2004)하며 체중에 매우 비판적이고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대 여성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신의 외모, 체형, 체중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고 이상적인 신체의 모습을 위해서 체중감량, 성형, 화장 등의 외모향상 행위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S. Kim, 2003). 이러한 외모향상 행위 중에서 의복을 이용한 방법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매우 높다. 또한 의복은 신체를 의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나타내는 상징성 뿐 아니라 신체의 외형을 보여주는 심미성을 표현하기도 한다(E. Park & Jo, 2014). 그러므로 의복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선호, 관심, 착용행동을 의미하는 의복태도는 여성의 비만도 뿐 아니라 외모, 체형, 체중과 관련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식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신체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Jhun & Lee, 2005; M. Lee, 2009)이거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Choi et al., 2006; Jiyoung Lee & Park, 2013)가 대부분이므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신체태도를 알아보고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비만도, 신체태도와 의복태도를 알아보고 그 관련성과 차이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관련업체에 세분화된 시장을 제시하여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만도와 신체태도

비만은 신체에 지방 조직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보통 정상 체중의 20-30%의 체중을 초과하였을 때를 비만이라고 한다. 비만도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서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이용한 방법이 WHO나 대한비만학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Yun, 2009).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18.5미만은 저체중, 18.5-22.9미만은 표준 체중, 23-24.9미만은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한다. 비만은 육체적으로는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자긍심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현대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신체는 갈수록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 개인에게 있어서 신체의 의미나 중요성은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차지한다(Kang & Park, 2009). 신체태도는 자신의 외모, 체형, 체중을 의식하는 태도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더 비판적이고 체중을 더 과대평가하며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인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가 비만이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스스로 비만이라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O. Kim & Yun, 2000; W. Lee, 2004).

비만과 관련된 신체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O. Kim(2002)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체질량지수, 신체태도,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태도의 하부 영역은 비만한 느낌, 체중과 체형의 중요성, 신체비하, 체력과 체력단련, 신체 매력, 하체비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체질량지수가 정상 범주에 속하였으나 정상 범주 내에서라도 체질량지수가 높은 대상자일수록 비만하다는 느낌이 강할 뿐 아니라 하체도 비만하다는 느낌이 강했으며 체중과

체형에 관심이 더 많고 고민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W. Lee(2004)은 여고생들의 비만, 신체에 대한 태도, 체중조절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태도는 비만한 느낌, 체중과 체형의 중요성, 신체비하, 체력과 신체단련, 하체비만, 신체 매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비만한 느낌, 신체 비하의 정도가 높고 체중과 체형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밝혔다.

Choi et al. (2006)은 자신을 비만으로 지각하는 성인의 비만정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신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Juyoung Lee and Kim(2011)은 여대생의 체중조절 행동과 신체태도 및 비만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신체태도는 비만한 느낌, 하체비만, 신체매력, 체중과 체형의 중요성, 체력과 건강함, 신체비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체중 집단을 제외한 정상체중 집단과 비만집단 모두 자기 신체에 대해 비만한 느낌을 가지며 체중과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본인의 신체에 대한 매력을 덜 느끼며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비만도는 체중과 체형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도와 같은 신체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신체태도는 제 2의 피부인 의복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복 태도

의복은 비언어적 상징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사회적,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개인의 신분, 소속 등의 사회적인 면과 함께 가치,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인 면을 반영한다(Jung & Chu, 2011).

태도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감정 및 평가를 바탕으로 그 대상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을 하려는 준비 상태로 행동을 유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태도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상에 대해 우호적이나 반우호적인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형성이 되면 변화되기 어려우며 지속성을 보인다(S. Lim, Hwang, Lee, Lee, & Yang, 2009)

그러므로 의복태도는 의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의복에 대해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같은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소, '의복을 좋아 한다'같은 선호와 취향을 나타내는 감정적 요소, '의복을 잘 입는 것은 직장 승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같은 사회활동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행동적 요소로 표현될 수 있다(Jung & Chu, 2011).

의복은 제 2의 피부로서 신체적으로 자기 확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복에 대한 태도는 신체, 외모 관련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Mun and Yoo(2003)는 의복태도를 유행성, 동조성, 흥미성으로 분류하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유행성과 흥미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E. Lee(2003)는 고등학생의 의복태도를 성적매력성, 개성표현, 유행추구, 심미성, 정숙성으로 분류하고 외모에 대한 태도는 의복태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Jhun and Lee(2003)는 신체태도와 의복태도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할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Jung and Chu(2011)은 의복태도를 유행성, 신분상징성, 정숙성, 동조성, 관리성으로 분류하였고 마른 체형 집단이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유행스타일의 의복과 유행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음을 밝혔다.

Song and Kim(2005)은 신체 매력에 대해 관심이 높고 본인을 정상 체형으로 지각할수록 의복으로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할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의복동조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Jung(2012)은 건강한 신체보다 매력적인 몸매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섹시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옷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명상표의 옷을 선호함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의복태도는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개인의 생각, 신념,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성, 유행성, 동조성, 흥미성, 성적매력성, 심미성, 신분상징성 등을 포함한 변인으로 외모,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신체태도 같은 신체 관련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문제

1) 여성의 신체태도를 분석한다.
2) 여성의 의복태도를 분석한다.
3) 비만도, 신체태도, 그리고 의복태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측정 도구

1) 비만도

비만도는 신체질량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18.5미만은 저체중, 18.5-22.9미만은 표준 체중, 23-24.9미만은 과체중, 2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기입식으로 보고한 체중과 신장을 사용하여 산출하여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인 비만도는 대상자가 스스로 평가한 비만도로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이상으로 분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신체태도

신체에 대한 태도는 Ben-Tovin and Walker (1992)가 개발한 Body Attitude Questionnaire (BAQ)를 근거로 한 O. Kim(2002)의 한글판 도구를 수정, 보완한 Juyoung Lee and Kim(2011)의 39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BAQ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44문항의 자기보고식 도구로 남들이 내 허리와 복부에 살찐 것을 볼까봐 걱정이다, 사진을 보면 내가 살이 찐 것같이 느껴진다, 늘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등의 비만한 느낌(feeling fat) 13문항, 다른 사람에게 내 몸매를 보이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내 외모를 비웃는 느낌이 든다 등의 신체 비하(body disparagement) 8문항, 내 체력에 대해 자신이 있다,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등의 체력과 건강함(strength and fitness) 6문항, 정기적으로 체중을 재는 것을 좋아한다, 몸매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 한다 등의 체중과 체형의 중요성(salience of weight and shape) 8문항, 나의 몸매가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남들이 내 외모에 칭찬을 한다 등의 신체 매력(attractiveness) 5문항, 내 허벅지가 굵다고 생각한다, 내 엉덩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 한다 등의 하체비만(lower body fatness) 4문항의 총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 도구는 여성의 신체태도 연구에 사용되어 왔고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Choi et al., 2006; O. Kim, 2002; W. Lee, 2004; Juyoung Lee & Kim, 2011)들이 요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값이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 (Table 1)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 각 요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9문항은 진술이 역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역으로 환산하였다.

신체에 대한 태도의 6개의 하부 척도는 비만한 느낌은 12문항으로 평균 3.27, 하체 비만은 4문항으로 3.26, 체중과 체형의 중요성은 6문항으로 2.86신체 매력은 5문항으로 2.80, 체력과 건강함은 4문항으로 2.76, 신체 비하는 8문항으로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선행연구(J. Kim & Jin, 2011; G.

Kim, Lee, & Jung, 2001a; E. Park & Ku, 2008)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6문항으로 4요인 모두 Cronbach's α는 .73이상으로 나타났다.

의복태도의 차원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에 의한 회전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4요인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검증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제외하였다.

요인 1은 눈에 띄는 의복을 선택한다, 남과 다른 옷을 입고 싶다 등의 4문항으로 개성추구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17.23%였다. 요인 2는 신체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선택한다, 날씬해 보이는 의복을 선택 한다 등의 4문항으로 신체보완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14.22%였다. 요인 3은 몸매를 드러내는 의복을 선택한다, 섹시해 보이는 의복을 좋아 한다 등의 4문항으로 외모 과시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12.03%였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의복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옷차림은 중요하다 등의 4문항으로 사회적 승인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력은 11.89%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고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43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4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417부를 회수한 후 부정확한 응답지를 제외한 39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18.0을 이용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72.5%, 기혼이 27.5%이고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이 66.5%, 직장여성이 33.5%로 나타났고 월 평균 의복지출비는 5만원 미만이 12.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35.8%,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4.0%, 20만원 이상이 27.3%으로 나타나 20대의 미혼이고 학생이며 월 평균 의복 지출비는 5만원 이상-10만원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 Body Attitude Subscale

Subscale		M (S.D)	Cronbach's α
Body attitude	Feeling fat	3.27(.82)	.90
	Body disparagement	2.22(.59)	.76
	Strength and fitness	2.76(.79)	.70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2.86(.53)	.70
	Attractiveness	2.80(.64)	.74
	Lower body fatness	3.26(1.05)	.85

Table 2. Clothing Attitude Factor Analysis

Factor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α
Factor 1: Personality pursuit				
I choose the visible clothes.	.87	3.07	17.23	.73
I would like to put on differentiated clothes.	..82			
I don't wear plain clothes.	.77			
I wear fashionable clothes.	.75			
Factor 2: Body complement				
I choose the clothes to complement my shortcomings	.82	2.47	14.22	.75
I choose loose clothes.	.77			
I choose body type-appropriate clothes.	.70			
I choose thinner-looking clothes.	.68			
Factor 3: Appearance ostentation				
I choose body-revealing clothes.	.82	2.26	12.03	.83
I like the look of sexy clothes.	.70			
I choose beautiful appearance-looking clothes.	.70			
I have often used perfume.	.65			
Factor 4: Social approval				
I choose clothes that are similar to other people.	.80	2.17	11.89	.79
I feel awkward when I wear clothes different from other people.	.74			
To get the recognition of other people clothing is important.	.68			
It is important that clothing is appropriate for T.P.O.	.68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비만도

연구대상자들의 비만도와 대상자가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인 비만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신장은 162.29cm이고 평균 체중은 53.75kg으로 BMI는 20.40으로 나타나 정상범위에 속해 있으며 저체중은 25.1%, 정상체중집단은 58.8%, 과체중 및 비만은15.8%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저체중이다에 19.1%, 정상 체중이다에 46.7%, 과체중 및 비만이다에 34.2%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저체중이나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은 자신의 사이즈를 왜곡하여 실제보다 뚱뚱하게 지각한다는 많은 선행연구(Jun, 2002; Juyoung Lee & Kim, 2011)와 같은 결과이다.

Table 3. Status of BMI and Subjective Obesity

Variables	BMI	Frequency	Percent
BMI	Under weight	100	25.1
	Normal weight	234	58.8
	Over weight	63	15.8
	Missing	1	0.3
Subjective obesity	Under weight	76	19.1
	Normal weight	186	46.7
	Over weight	136	34.2
Total		398	100.0

2. 신체태도

1)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신체태도

연구대상자들의 결혼여부와 직업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식하는 신체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비만한 느낌과 신체비하에서, 직업에 따라서는 하체비만에서, 월 평균 의복지출비용에서는 비만한 느낌, 하체비만, 그리고 신체매력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만한 느낌과 신체비하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직장여성이 학생보다 하체비만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미혼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출산의 경험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 월 평균 의복지출비용이 적은 집단이 비만한 느낌과 신체비하를 더 느끼고 월 평균 의복지출 비용이 많은 집단일수록 자신의 신체매력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모관리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여성일수록 날씬하고 의복관리행동과 몸매관리행동을 많이 한다는 Juyoung Lee(2012)의 연구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체형이 날씬하여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있고 의복을 이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2) 비만도에 따른 신체태도

연구대상자들의 비만도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의식하는 신체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태도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체중 집단에 비해 정상체중집단이나 과체중집단이 자신의 신체와 하체에 대해 더 비만한 느낌을 느끼고 신체를 비하하며 체력이 강하고 건강하다고 느끼며 체중과 체형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 매력은 저체중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비만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대상자의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신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Choi et al. (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본인의 체중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부정적인 신체태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4. The Difference of Body Attitud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Feeling fat	Body disparagement	Strength and fitness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Attractiveness	Lower body fatness
Marriage	unmarried (n=223)	3.24 (.82)	2.19 (.57)	2.75 (.79)	2.86 (.53)	2.82 (.63)	3.23 (1.05)
	married (n=85)	3.59 (.73)	2.56 (.67)	2.71 (.71)	2.88 (.51)	2.61 (.66)	3.60 (.95)
	t	-2.15*	-3.24**	.32	-.15	1.64	-1.81
Job	student (n=205)	3.22 (.81)	2.19 (.58)	2.75 (.79)	2.87 (.52)	2.82 (.64)	3.18 (1.05)
	employee (n=103)	3.39 (.84)	2.29 (.80)	2.78 (.67)	2.83 (.54)	2.77 (.61)	3.47 (1.00)
	t	-1.70	-1.52	-.43	.51	.72	-2.28**
Clothing purchase cost	Below 100,000 KRW (n=148)	3.48a (.79)	2.53a (.61)	2.81 (.77)	2.82 (.58)	2.34c (.70)	3.08 (.74)
	110,000-200,000 KRW (n=74)	3.15b (.70)	2.37ab (.72)	2.76 (.91)	2.90 (.61	2.62b (.64)	3.19 (1.01)
	Over 210,000 KRW (n=84)	2.87c (.87)	2.19b (.81)	2.67 (.67)	2.93 (.64)	3.15a (.87)	3.31 (.99)
	F	14.30***	3.98*	.57	1.72	12.98***	1.69

*p<.05 **p<.01 ***p<.001 a,b,c=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scheffe test

Table 5. The Difference of Body Attitude by BMI

Variables	Feeling fat	Body disparagement	Strength and fitness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Attractiveness	Lower body fatness
Under weight (n=100)	2.56(.77)c	1.91(.49)c	2.42(.78)c	2.65(.58)b	3.12(.61)a	2.46(1.06)c
Normal weight (n=234)	3.38(.70)b	2.25(.58)b	2.85(.80)b	2.92(.51)a	2.76(.57)b	3.40(.91)b
Over weight (n=63)	3.98(.49)a	2.58(.51)a	2.97(.60)a	2.94(.39)a	2.44(.70)c	3.94(.74)a
F	88.98***	29.64***	13.58***	10.36***	26.16***	57.04***

***p<.001 a,b,c=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scheffe test

3. 의복태도

1)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른 의복태도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특성에 따라 의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결혼여부에 따라서 신체보완 의복태도에서, 직업에 따라서 개성추구, 외모과시, 사회적승인 의복태도에서 월평균 의복지출비용에서는 외모과시와 사회적승인 의복태도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의복선택 시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고자하는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의복선택 시 개성을 추구하는 의복을 선택하고 직장여성이고 의복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돋보일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의복태도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승인의 의복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용돈이 많은 집단일수록 의복태도 중 심미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난 Jhun and Lee(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물질적으로 풍족할수록 의복으로 자신을 아름답

Table 6. Clothing Attitud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Personality pursuit	Body complement	Appearance ostentation	Social approval
Marriage	unmarried (n=223)	2.50 (.98)	2.73 (1.18)	3.07 (.06)	4.04 (.86)
	married (n=85)	2.38 (.99)	3.39 (1.20)	2.79 (.83)	3.86 (.52)
	t	.57	2.64**	.31	.10
Job	student (n=205)	2.59 (.94)	2.72 (1.16)	2.98 (.96)	3.73 (.84)
	employee (n=103)	2.22 (1.04)	2.82 (1.26)	3.29 (.91)	4.01 (.80)
	t	3.18**	-.73	-2.70**	-3.79***
Clothing purchase cost	Below 100,000 KRW (n=148)	2.49 (.89)	2.69 (.99)	2.94b (.87)	3.67c (.67)
	110,000-200,000 KRW (n=74)	2.38 (1.00)	2.82 (1.01)	2.97b (.92)	3.85b (.87)
	Over 210,000 KRW (n=84)	2.50 (.94)	3.01 (1.12)	3.37a (.97)	4.19a (.89)
	F	.79	1.01	6.87**	11.32***

**p<.01 ***p<.001 a,b,c=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scheffe test

게 보이고자하는 하는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인이 학생에 비해 사회적 환경과 규범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20-30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J. Kim and Jin(2011)의 연구에서 학생이 직장인에 비해 개성추구 태도가 강한 반면 사회적 승인태도는 학생에 비해 직장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20대 직장인의 경우 외모과시의 의복태도와 사회적 승인의 의복태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중에게 알려진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소속감을 추구하는 한편 타인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희소성을 지닌 특별한 것을 구매함으로써 타인과의 차별화를 추구한다고 한 E. Park and Ku(200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2) 비만도에 따른 의복태도

연구대상자들의 비만도에 따라 의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의복태도의 변인 중 개성추구, 신체 보완, 외모과시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 집단보다 정상 체중 집단이, 정상체중집단보다 저체중집단이 의복의 선택 시 개성 추구와 외모과시에 관심을 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집단일수록 의복의 선택 시 자신의 신체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신체에 자신감이 있는 저체중 집단은 의복의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외모를 돋보이고 과시할 수 있는 의복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저체중인 사람이 좀 더 의복으로 자기 자신의 섹시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G. Kim, Lee and Jung(2001b)의 연구와 비만군의 여성일수록 신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여유 있는 스타일의 의복으로 본인의 신체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한 S. Park(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4. 신체태도와 의복태도의 관계

신체에 대한 태도 6개의 하부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신체태도의 변수 중 비만한 느낌과 하체비만의 상관계수가 .73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의 VIF값을 분석한 결과 1.06에서 3.1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체에 대한 태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반적으로 신체 매력과 비만한 느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매력은 의복 태도 요인 중 개성 추구, 외모 과시, 사회적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신체에 대해 매력적인 태도를 가지는 여성일수록 개성 있고 자신의

Table 7. The Difference of Clothing Attitude by BMI

Variables	Personality pursuit	Body complement	Appearance ostentation	Social approval
Under weight (n=100)	3.16(.59)a	1.73(.87)c	3.26(.92)a	3.08(.90)
Normal weight (n=234)	2.47(.98)b	2.87(1.11)b	3.08(.95)b	3.18(.89)
Over weight (n=63)	1.39(.63)c	3.75(1.32)a	2.29(1.01)c	3.12(1.02)
F	35.73***	37.75***	10.73***	1.64

***p<.001 a,b,c=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y scheffe test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of Body Attitude

Variables	Feeling fat	Body disparagement	Strength and fitness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Attractiveness	Lower body fatness
Feeling fat	1.00	.59***	.12*	.54***	-.53***	.73***
Body disparagement		1.00	-.06	.37***	-.56***	.47***
Strength and fitness			1.00	.02	-.01	.18***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1.00	-.16**	.39***
Attractiveness					1.00	-.45***
Lower body fatness						1.00

*p<.05 ***p<.001

신체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외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의복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성적매력성이 높다고 한 E. Lee(2003)와 외모에 관심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섹시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선호한다는 G. Kim et al. (2001a)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 성취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착용에 있어 이성적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K. Lim(201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비만한 느낌은 개성 추구와 외모 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체 보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할수록 의복의 과시성이 높다고 한 Song and Kim(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체 비하는 개성 추구, 신체 보완, 사회적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체 비만은 신체 보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정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20대 여성들이 의복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날씬한 몸매가 중요하고 자신의 몸매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신체태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체중인 사람이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더 연예인의 의복을 쫓아하려고 한다고 한 Jung(2012)의 연구와 저체중인 사람이 좀 더 의복으로 자신의 섹시함을 나타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 G. Kim et al. (2001b)의 연구와 관련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특성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태도와 의복태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체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특성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비만한 느낌과 신체비하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직장여성이 학생보다 하체비만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 의복지출비용이 적은 집단이 비만한 느낌과 신체비하를 더 느끼고 월 평균 의복지출 비용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Attitud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t	R^2	F
Personality pursuit	Attractiveness Feeling fat Body disparagement	.67 −.37 −.17	16.23*** −6.11*** −3.89***	.60	101.34***
Body complement	Feeling fat Lower body fatness Body disparagement	.80 .24 .14	11.52*** 4.17*** 2.84**	.48	62.20***
Appearance ostentation	Attractiveness Feeling fat	.78 −.18	17.29*** −2.71***	.52	72.79***
Social approval	Attractiveness Lower body fatness Body disparagement Salience of weight and shape	.72 −.20 .10 .07	18.54*** −4.13*** 2.43* 1.96*	.64	120.98***

*p<.05 **p<.01 ***p<.001

이 많은 집단일수록 자신의 신체매력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체중 집단보다 정상체중집단이나 과체중집단이 자신의 신체와 하체에 대해 더 비만한 느낌을 느끼고 신체를 비하하며 체력이 강하고 건강하다고 느끼며 체중과 체형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개성추구, 신체보완, 외모과시, 사회적 승인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적특성과 비만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고자하는 태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경우 개성을 추구하는 의복을 선택하고 직장여성이고 의복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외모를 돋보일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의복태도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승인의 의복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체중 집단보다 정상 체중 집단이, 정상체중집단보다 저체중집단이 개성 추구와 외모과시에 관심을 가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신체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신체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신체 매력과 비만한 느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은 개성 추구, 외모 과시, 사회적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한 느낌은 개성 추구와 외모 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체 보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비하는 개성 추구, 신체 보완, 사회적 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체 비만은 신체 보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정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20대 여성들은 본인의 비만도와 관계없이 자신 스스로를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신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학생들은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며 직장여성들은 외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사회적 승인을 추구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마케팅적 관점에서 패션관련업체들은 각 세분시장에 적합한 의복 디자인 개발 뿐 아니라 타겟 층에 맞는 상황 장면 제시 등의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광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대 여성들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고자하는 의복태도에 신체태도 중 본인의 신체가 비만이라고 느끼는 태도가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관련 업체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서 긍정적인 신체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광고나 홍보 등의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여성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비만도에 대한 조사가 자기보고식이어서 실제 체중과 신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여성들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연령에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청소년과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까지 포함하여 의복관련변수를 적용한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Choi, W., Kim, S., Moon, S., & Kim, S. (2006). A study on BMI,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body shape perceived by obese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4), 502-511.

Jhun, Y., & Lee, M. (2005). A study of Clothing attitude, body attitude, and social values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9). 1219-1229.

Jun, K. (2002). Clothing Involvement and clothing satisfaction by the awareness of body typ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in Seoul. *Korean Society of Costume Journal, 52*(3), 75-85.

Jung, M. (2012).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body value inclination, and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10), 1125-1136.

Jung, S., & Chu, M. (2011). The effects of somatotype,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and body image on clothing atitude. *Journal of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3*(3), 117-133.

Kang, Y., & Park,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self-esteem toward appearance care behavior of beauty salon customer. *Journal of Korea Cosmetology*, *15*(1), 363-373.

Kim, G., Lee, K., & Jung, M. (2001a). The effects of multiple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2), 358-365.

Kim, G., Lee, K., & Jung, M. (2001b).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9), 95-102.

Kim, J., & Jin, S. (2011). Fashion attitude and bag purchase behaviors of males in their 20s-30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3), 267-280.

Kim, O. (2002). BMI, body attitude and dieting among college wom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4*(2), 256-264.

Kim, O., & Yun, H.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weight control behaviors among high school females with normal body weigh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2), 391-401.

Kim, S. (2003). The study on body image and lifestyle. *Korean Society of Costume Journal, 53*(1), 87-98.

Lee, E. (2003). The effects of psychologic characteristics and appearance attitude on clothing attitude. *Korean Living Science Journal, 12*(2), 237-251.

Lee, J. [Juyoung] , & Kim, J. (2011). A study on weight control behavior, body attitude, and obesity stress of a women's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7*(3), 461-467.

Lee, J. [Juyoung] . (2012). The effects of body image on apparel management behavior and weight control behavio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4), 123-136.

Lee, J. [Jiyoung] , & Park, H. (2013). Effects of self-esteem,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and media concern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3), 1-17.

Lee, M. (2009). The relationship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3). 433-443.

Lee, W. (2004). *A study on obesity, body attitude, weight control behavior of high school fema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Lim, K. (2010). A study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clothing benefit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effects of value systems and soci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2*(4), 29-41.

Lim, S., Hwang, S., Lee, J., Lee, S., & Yang, Y. (2009). *Contemporary costumes social psychology*, Seoul: Kyomunsa.

Mun, H., & Yoo, T. (2003). A study on self-esteem, appearance interest, clothing attitude, and makeup. *Korean Society of Costume Journal*, *53*(4), 101-112.

Park, E., & Jo, H. (2014). The influence of expected values for appearance management on interest in make-up and cosmetics evaluation criteria. *Journals of Fashion Business, 18*(1), 22-35.

Park, E., & Ku, Y. (2008). The effects of consumption value on college students' clothing attitud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5), 141-154.

Park, S. (1998). *Body image and clothing wearing style of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ong, K., & Kim, J. (2005). The effects of body-image measured by multi measurements on body modification,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3), 391-401.

Yun, D. (2009). *Nutritional science*. Seoul: Kwangmungak.

Received(July 28, 2014)
Revised(September 29, November 2, 2014)
Accepted(November 7, 2014)